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12월 13일(금)  
(음력 11월 17일)  
Пятница  
13 декабря 2019г.  
№ 48(116865)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2월 12일은 러시아에서 제헌절을 기념한다. 이 날 사할린주 정부에서 14세의 우수 학생들에게 첫 러시아 연방 국민 여권 수여식이 있었다. 생애 첫 국민 여권은 세르게이 나우모브 부수상이 수여했다. (이예식 기자 촬영)

## 단신

### 조국 영웅의 날 기념 감사장 수여

사할린에서 조국 영웅의 날을 기념했다. 지난 9일(월) 이날을 기리는 행사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주민속창작센터에서 진행된 가운데 참전자, 대조국 전쟁 참전 원로들, 정부 대표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참전 원로들의 활동과 청년 애국교육을 실시한 사할린 사회단체 회원들 6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12월 9일 <승리 자원봉사> 전국 운동 사할린 지부 참가자들은 러시아의 영웅과 소비에트 연합 영웅들을 기려 이름을 부친 거리와 광장, 주택 휴식 공간으로 나가서 거리와 광장에 부착된 이름의 영웅들과 이들의 공적에 대한 정보를 담은 삼각 편지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이 활동은 홈스크, 토마리, 코르사코브 시에서 이뤄졌다.

### 사할린주 한인협회, 결산 및 선거 대표자회의 개최

오는 14일(토) 오전 11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 한인협회 결산 선거 대표자 회의가 개최된다. 이에 앞서 각 지방한인회에서는 이 회의에 참석할 대표를 선별하는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위촉된 이들은 지방한인회 회장들과 함께 새 주 한인협회 회장, 운영위원, 감사위원들을 선정할 권리를 갖고 참석한다.

주한인협회 회장 후보로는 박순옥 주한인협회 현 회장이 단일 후보로 올라 있다고 전해졌다.

### 3회 사할린 로봇기술 챔피언십 개최

지난 8일(일) 사할린주 로봇기술 시험 경연이 교육 품질 평가센터 사할린 지부에서 개최되었다. 정기 챔피언 대회 참가 연령은 5세-18세이고 160여 명의 참가자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홈스크, 오하, 달네예, 노글리키, 퓌몌스코예 등지를 대표해 경쟁에 나섰다. 코치와 교사 20여명도 이들과 함께했다. 참가 대상(학령 전 아동, 1-2학년, 1-4학년, 5-8학년, 9-11학년)은 5개 부문(기본 원리, 사할린 관광, 농업, 석유가스 분야)에서 승부를 다투었다.

###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동 체스 축제를 연다

12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마법의 체스> 전통 아동 체스 대회를 개최한다. 미래의 거장들의 전투는 <스포츠 도시> 체스 클럽에서 열리며 경기는 '초보 토너먼트', '챔피언 토너먼트', '슈퍼리그'로 진행된다. 초보자 토너먼트와 챔피언 토너먼트에는 각각 초보자, 1-2년의 경력으로 일정한 성적이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며 슈퍼리그는 사할린 청소년 체스의 '진수'라고 할 수 있다.

### 12월 12은 러시아 연방 제헌절 친애하는 여러분!

러시아 연방 헌법 제정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3년 12월 12일 헌법의 기본 전문이 전 국민의 투표로 채택되어 우리나라와 지역 발전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에 공표된 바와 같이 인간은 존엄한 가치의 존재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미 25년 이상 사회적 분야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적 향상, 전문적 및 개인적 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사할린주에서도 이와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할린주는 사회적 지원 정책에 있어서 다른 행정지역들 중에서도 단연 선두적 위치에 있습니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이 걱정하는 주택, 도로 건설의 가속화, 교육기관 및 병원, 스포츠, 기타 제반 분야의 새로운 시설 건립에 대한 많은 문제들도 성공적으로 해결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 주민의 삶이 더욱 편안해지도록 지역을 건설해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께 강건함과 번영과 새로운 성취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명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 알렉세이 벨리크, 사할린 주 정부 수상 직 승인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가 알렉세이 벨리크를 후보로 추천한 가운데 주두마 회의에서 사할린주정부 수상으로 결정되었다. 알렉세이 벨리크는 연방 예산에서 추가 자금 획득 시 사할린 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쿠릴 열도와 연결을 위한 두 척의 연락선 건조에 따른 계약 체결을 감독했다고 주지사가 언급했다. 또한 그는 비용 절감으로 추가 항공노선 조성 사업에 기여를 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알렉세이 벨리크는 사할린주 정부의 효율적인 업무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 주 집행기관의 지도자들과 주 정부의 차관들과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조율하고 있으며 그의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 덕에 연방 정부가 지향하는 프로그램이 성취되고 있다. 우리는 함께 사할린과 쿠릴의 주민들을 위한 선하고 이로운 많은 일들을 이미 해냈으며 앞으로도 그 일을 지속해갈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 주 정부 수상 후보를 만장일치로 지지했다. 안드레이 하포츠킨 의회 의장은 알렉세이 벨리크가 주두마와의 상호작용으로 열린 대화의 창을 마련하여 항상 건설적인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후보자의 전문적 경험은 직무에 모든 필요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지지 발언을 했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 사할린주, '선행 지역' 대회에서 우승

<선행 지역> 전국 자원봉사 지원 우수 실무 경연의 우승자 시상식이 소치에서 열린 국제 자원봉사자 포럼에서 개최되었다. 행사에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에서 7천여 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사할린주가 수상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사할린주 대표단은 <아시아의 아이들> 제 1회 국제 청소년 동계스포츠 대회 자원봉사 준비와 사할린에서 진행된 <러시아 기능인 대회> 제6회 국가기능 선수권 결승 대회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실시로 경연에 참가했다.

"우승은 대단히 크고 뜻깊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실시한 활동을 높이 평가하여 우승하게 되었고 상장과 상금 6,211,300루블리를 받았다. 이 상금은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을 돕고 사할린 각 지역에 있는 자원센터 지원을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사할린주 청년청 김 엘레나 전문가가 표명했다. 경연에는 총 37개 지역이 경쟁을 치른 가운데 이들의 실무를 연방 고등교육부의 전문가들과 러시아 대규모 사회단체와 자선재단의 지도자들이 심사하여 행정지역의 우승자들에게 총2억5천만 루블리를 분배했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 홍보실이 전했다.

### 새고려신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570루블리 90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 2020년 상반기 신문주문 시작



# 올해는 사할린 한인 강제 동원 80주년이 되는 해 다시 사할린 한인사를 돌아보며

2019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는 일본이 한인들을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다. 사할린 한인 역사를 다시 되새기고 아직도 미결된 문제에 대해 상기시킨다.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선임연구가 진 율리아 박사

1905년 사할린의 남부가 일본의 지배 하에 넘어갔다. 1910년 대한제국이 병합된 후, 가라후토(남사할린)와 한국은 1945년 일본의 패전까지 식민지 지위를 갖게 된다. 이처럼 사할린과 한국은 36년 동안 한 식민국가의 국경이 어였다는 연관성이 있었다.

일본의 식민지배체제는 본토와 식민지로 나뉘어져 있었고, 당연히 제국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위사에 있어서는 당시 식민지 주민들은 억압 받은 반면, 본토인(일본인)들이 더 많이 더 높게 차지하였다. 남사할린은 공식적으로 1943년까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였는데 이후 홋카이도주로 편입되었다. 즉 사할린이 일본에 귀속된 40년 중 38년은 식민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연구자들은 일본의 식민지 배체제에서의 남사할린의 특수한 위상을 언급하고 있다. 즉, 남사할린의 행정통치체제는 홋카이도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 많았는데, 이는 이곳에 일본인들이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사할린으로의 한인 이주를 연구할 때에는 사할린의 특수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할린의 특수성은 이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했는데 이는 혹독한 기후, 지리적 오지,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자연환경이다. 일본은 가라후토에 식민이주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능한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썼을 뿐만 아니라 노동 모집과 징용을 넓게 활용하였다.

국제 정세와 일본의 대외정책은 남사할린으로의 이주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태평양전쟁의 시작은 일제가 노동지원에 대한 통제를 하게끔 하였다. 1937년 이후 일본인과 식민지 주민들은 강제 징용 대상이 되었다. 강제 징용의 속도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1939년에는 850명이 징용되었고, 1940년에는 311,724명, 1942년에는 이미 623,385명이 강제징용되었다. 모든 노동력은 엄격

한 통제 아래 산정되었고 동시에 자발적인 이주를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빈곤과 생활수준의 하락으로 인해 근로노동자들의 건강상태를 전체적으로 악화시켰고 사망률은 높아졌다.

1938년부터 효력을 발한 법령 <총동원령에 대하여>은 50개 조항과 부수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동원의 조건과 이행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일제는 이 법령과 전시법에 의거하여 일본인과 식민지 주민들에게 노동 부역과 근로를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남사할린의 일본 당국도 마찬가지로 강제 징용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남사할린이라는 상황은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다. 당국은 우선적으로 자원에 의한 모집, 친척과 지인을 통한 모집을 통해 한인들의 이주를 권장하였다. 그러나 강제 징용 계획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완수하였다. 계획은 1939-1945년간 19,500명이었는데 실제 수는 16,113명이다. 강제 징용된 한인들 대부분은 남사할린의 광산에서 일하기 위해 보내졌다.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직종별 분포	
탄광업	65.2%
토목건축	33.6%
금속광산	1.2%

(자료/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1944년 경에는 가라후토에서 한인 수는 2만6천

명을 넘어섰다. 여성 수는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1944년에는 남성은 18,213명, 여성은 7,552명이었다. 이는 강제 징용의 결과로 이들의 가족은 고향에 남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제 징용으로 남사할린의 한인 수가 증가한 것만은 아니었다. 일제 지배하의 정세 변화로 인하여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인 1944년 8월 11일 일본 정부는 <가라후토와 쿠시로 광부와 자원의 즉각적인 재배치에 대한>결정을 채택한다. 이 결정으로 인해 남사할린 서부 해안가에 있는 26개의 광산 중 14개가 폐쇄되었고, 이 광산에서 일하던 일본인과 한인 노동자들은 일본의 섬들로 재배치된다. 이 노동자들은 6천에서 1만 명 정도로 생각된다. 이들 중 한인들은 약 3천여 명이다. 역사학에서 '전환배치'라고 불리는 이 이중 징용의 환경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이 전환배치로 인한 가장 큰 영향은 남사할린에 남은 가족들과의 이별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중 징용된 사람들 중 일부는 1945년 전쟁이 끝난 후 사할린 섬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전투와 필요한 정보 부재로 인해 돌아올 수 없었다. 이중 징용 당한 한인들 대부분은 혹독한 노동으로 일본의 광산에서 일찍 사망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의 영토였던 남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들의 대부분의 한반도의 남부에서 이주하

였다. 이주의 주요한 형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할린에서 일하기 위협(조선에서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임)과 다른 하나는 전시 동원법에 의해 강제로 징용된 경우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가 소련으로 양도된 후, 이 노동 이민과 강제 징용된 한인들이 반세기 이상 귀환하지 못했다.



KIN(지구촌동포연대) 최상구 사무국장

올해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해이다. 우선 3.1운동이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1년 내내 이어졌다. 그리고 올해는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이 80년의 해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한 지 1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한국 정부와 일본이 한일협

정을 맺으며 모호하게 처리해버린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하여 명백한 불법 지배임을 밝힌 것이고, 개인에 대한 배상과 보상은 한일협정과 무관한 것임을 선고한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다면, 이 불법 지배로 인하여 조선인들이 입은 피해는 무엇인지, 그 규모는 어디까지 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사할린 한인의 역사는 일제의 강제동원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1937년 이후에는 한인들의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데, 이는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먼저 온 가장을 찾으러 가족들이 왔기 때문이다. 일본은 가족들이 사할린으로 오는 것을 장려하였는데, 사할린 개발에 있어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 한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었다. 즉, 강제 동원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주역시 일본이 정책적으로 장려한 것이라면, 그 가족들과 후손에 대하여 일본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닌가?

일본을 상대로 한 한국 정부의 외교가 소극적인 건 위헌이라는 사할린 동포들의 주장을 담아 2012년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이 있는데, 7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작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 헌법재판소 또한 조속히 판결을 내려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해야 한다.

(7면에 계속)

## 이모저모

### 사할린 작가의 저서 극동 문학상 상위 목록에 올라

사할린주두마 의원이자 변호사인 이고리 안추크 작가가 문학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고리 안추크가 지은 동화책 '어린이들의 꿈속 마법의 세계에서 카차와 마르카의 모험'이 <극동> 블라디미르 아르세네브 러시아 문학상 후보 상위 목록에 올랐다. 사할린 작가의 작품은 <아동 소설>부문에 아나스타시야 스트로키나의' 북극을 누비는 고래'와 알렉산드라 아가포노와의

'신기한 야쿠치야' 작품이 함께 올랐다. 이고리 안추크의 작품은 2018년 여름 블라디보스톡에서 출간되었고 이후 작가는 주인공 영웅들을 주제로 3권의 책을 연이어 출판했다. 작가의 구상상 시리즈는 7권이 있다고 한다.

이고리 안추크는 자신의 자녀들을 키우며 이를 토대로 최근에 문학적 작업으로 연결시켰다고 밝혔다. 문학상 참가는 작가로서 등단하는 것이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 집필은 저로서는 저만의 오아시스, 환기장이며 마음의 분출이기도 합니다." 라고 주두마 의원은 설명했다.

이고리 안추크의 저서 외에도 문학상 후보 상위 목록에는 <장편소설>부문, <단편소설>부문에 7개의 작품이 올랐다.

문학상의 목적은 극동 지역에 대해 글을 쓰는 현

대 작가들의 작품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

수상자는 12월 13일 <모스크바에서 극동의 날> 행사에서 발표한다. 수상자들에게는 상금 50만 루블리를 수여한다.

### Книга сахалинского писателя вошла в шорт-лист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ной премии

Островной писатель, адвокат и депутат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претендует на литературную награду. Книга Игоря Янчука «Приключения Кати и Марка в волшебном мире детских снов» вошла в шорт-лист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ной премии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мени В. К. Арсеньева.

Произведение сахалинского литератора заявлено в номинации «Детская проза» вместе с книгами «Кит плывет на север» Анастасии Строкиной и «Сказочная Якутия» Александры Агафоновой. Книга Янчука вышла летом 2018 год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отом автор опубликовал продолжение — еще три книги с теми же главными героями. По замыслу писателя, в серии будет семь томов.

Игорь Янчук признался, что к литературному труду он приобщился недавно и в основном благодаря собственным детям. Участие в этой премии для автора является дебютным.

— Написание книжек для малышей — это для меня своеобразная отдушина, так сказать, порыв души, — признался депутат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В шорт-лист, кроме книги Игоря Янчука, вошли еще семь произведений в номинациях «Длинная проза» и «Короткая проза». Цель премии — популяризовать творчество современных авторов, пишущих о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бедителей назовут 13 декабря во время мероприятия «Дн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Москве». Каждый из авторов получит по 500 тысяч рублей.

### 또 한 명의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이 백만장자가 되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의 한 주민이 복권에 당첨되어 40루블리의 티켓으로 3,261,232루블리를 받게 되었다. 복권 판매 홍보실이 확인한 바로는 이는 12월 초부터 벌써 <고스로도 36중 5>의 대상을 거머쥔 두 번째 백만장자이다.

당첨금을 받기 위해서 사할린 주민은 '스톨로또'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복권 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총상금의 세금은 13%인데 상금 지급 시 세금을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Еще один южносахалинец стал миллионером

Жи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тал одним из победителей лотереи. Неизвестный островитянин выиграл 3 261 232 рубля, купив билет стоимостью в 40 рублей. Как уточн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аспространителя лотерей, с начала декабря это уже второй миллионер, который забирает суперприз в «Гослото «5 из 36».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выигрыш, сахалинцу нужно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сайте «Столото» и обратиться в лотерейный центр. На официальной веб-странице компании указано, что налог с суммы приза составляет 13 процентов и удерживается при выплате денег.

(8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문예콩쿠르, 학생 부문 3등 수상

박 아르쫘 (하바롭스크시 '폴리테크닉 리제이' 중학교 6학년)

한국 여행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 아르쫘입니다. 하바롭스크시, 중학교 '폴리테크니체스키이 리제이' 육학년생이고, 열셋 살입니다. 고향이 하바롭스크시입니다. 한국어를 배운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매년 여름에 한국으로 갑니다. 첫 번째 제가 일곱 살 때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한국, 경기도, 양주에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계십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집에 놀러 다녀왔습니다. 할머니의 성함은 류 라이사이고 할아버지 성함은 박 유리가 미하일로비치입니다.

첫 번째 한국 여행할 때에 날씨가 매우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더위를 탔습니다. 제가 롯데월드 같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면, 떡, 김치, 냉면, 멸치, 김밥, 다양한 국수 등을 먹어봤습니다. 이 모든 음식 중에서 정말 맛있는 것은 매운 음식입니다. 할머니는 그 음식을 직접 집에서 요리하시거나 카페에서 사다드립니다.

모든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능숙하게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누구나 젓가락질 하는 것을 잘 배우면 밥을 아주 쉽게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네 번 여행하면서, 여행마다 더욱 흥미롭고 재미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와 전통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면 즐거운 곳들을 많이 찾아갑니다. 그 외에 할머니가 사는 동네 거리에서도 놀고, 한국에 놀러온 다른 러시아 아이들과도 자전거를 탑니다. 이번 여름 방학 6월에도 할머니와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갈 계획입니다.

한국은 아주 재미 있고 지루하지 않은 매우 좋은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나무가 쓰러졌다-아버지를 위하여 / 이승희

나무가 쓰러졌다  
마지막 중심이  
딱, 소리를 내더니 전체가  
한 번에  
쓰러졌다.

가지가지 잔가지마다  
오순도순 따순 손들을 흔들던  
식구들도 많은데  
아직도 반짝이는 어린잎들 데리고  
그렇게  
쓰러졌다.  
오래 익숙했던 바람이여 안녕  
저기 키 작은 나무들도 안녕  
말도 못하고  
정들었던 세월 어디 두고  
차가운 얼굴로 돌아서는가  
한 번도 떠남을 꿈꾸지 않았던 세월  
온몸을 끝으로 끝으로만 밀어가며  
키워 온 잔가지들 저리 두고.  
숲은 말없이 바람을 거두고  
서성이던 나무들 저마다 머리 풀고  
말이 없어도  
다시 그곳에 바람이 불겠지요  
겨울 햇살 나부끼겠지요  
그렇게 숲은 어디로든 나아가겠지만  
밝은 탁자 위 쓰다만 아버지의 편지  
여기가 바닥이라면 그 무엇도 희망이 될지 모른다는.

"짜부님의 형님께서 임종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모스크바에서 급히 사할린을 방문하셨다는. 짜부님이야 늘 그렇듯 담담하셨습니다만, 형님을 잃었다는 소식에 오히려 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낚시 얘기를 나눴고, 내년이 될지 아니면 내후년이 될지 모를 배낚시에 관한 얘기로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방 안에서 기뻐할 때 슬픔은 대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다는 말. 이 말이 떠오르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서울에서 허진원, 2019년 12월 11일

<소련에서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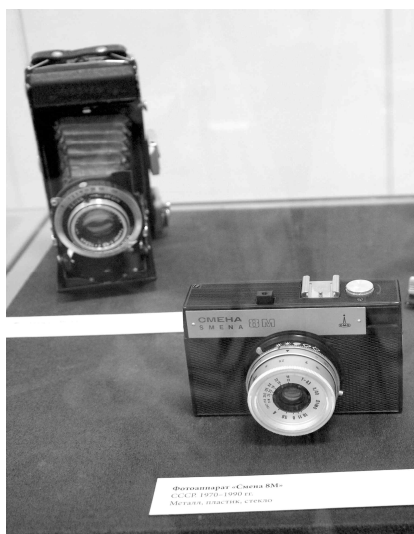
지난 5일(목)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박물관에서 <소련에서 제작>이란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다. <사할린-쿠릴릭>통신사와 <구베른스키에 웨도모스찌>신문사가 주최한 이 전시회에는 1930년부터 1980년대까지 소련시대의 통신 매체들 (프로젝터, 테이프 레코더, 라디오 수신기, 등유 램프, 희귀한 사진기 등) 이 소개되었다.

전시회는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60년 전으로 돌아가 구세대에는 어떤 물품을 썼는지, 뭘 원했는지 기억나게 하고 차세대에게는 소련시대의 장비와 그 역사를 이야기해준다.

전시회 출품들은 사할린 주민들이 직접 가져온 물품들로 현재 쓰지 않아 대다수가 창고나 다차(별장)에 보관했던 것들이라고 한다.

전시회를 찾아온 교사, 선원, 예술가, 기자 등은 각자 관심이 가는 물품을 찾아보며 옛 추억을 되새겨보기도 했다.

(취재: 이에식 기자)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 등 안내문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9년 11월 17일 ~ 2020년 2월 15일
- 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출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

([ovyuzhnosakhalinsk@mofa.go.kr](mailto:ovyuzhnosakhalinsk@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한 : 2020년 2월 15일까지
- 대상자
  - 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 직전 선거(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변경등록신청
  - 직전 선거(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 제출처 :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 ([ovyuzhnosakhalinsk@mofa.go.kr](mailto:ovyuzhnosakhalinsk@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음.(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신분증은 없어도 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 절차, 방법, 신고, 신청 서식 및 신고 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 (<http://ok.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제공)  
(국외부재자신고 관련 포스터는 7면에 게재)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Детское двуязычие – хорошо или плохо?!»

7-8 декабря 2019 года в университете Хоккайдо при поддержке Япо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по исследованию проблем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сообщества русскоязычных школ Японии и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медиа и коммуникац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Хоккайдо прошел семинар на тему «Русско-японское двуязычие». Организаторы встречи поставили участникам два важных вопроса: вы хотите, чтобы ребенок знал русский и что для этого делать.

На семинаре прозвучали доклады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ассоциации родителей и учителей русскоязычных школ в Япони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Токий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Японии. Это позволило обсудить разные проблемы, например, такие, как планировать занятие с ребенком дома или как выстраивать систему обучения. Одновременно с этим были рассмотрены темы выбора старшей школы в Японии в условиях получения

аттестата в рамках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исте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акже в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Южной Кореи: учредитель частног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Русская академия Ансан» (А.В. Ким) и учредитель центра помощи русскоязычным корейцам «Мир» (Ким Сын Лёк). Участники с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зали, как строится работа по обучению, воспитанию и сопровождению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городе Анса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какими предпочтениями могут обладать и с какими трудностями могут столкнуться учителя и их ученики.

Средством общения между докладчиками и другими участниками семинара стали русский, японский 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и. С программой семинара мож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сайте «Компас» (Ассоциация родителей и учителей русскоязычных школ Японии).

**Яна Коротаяева**, аспирантка СахГУ (г. Саппоро)

## На Сахалине есть почти все, чтобы привлечь молодых туристов из Коре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бсудили, как заманить на острова туристов из Южной Кореи. Оказалось, что на принятие решения о поездке снова могут повлиять блогеры, а такж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авиарейсы, дешевые гостиницы и таблички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Как рас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российск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компании TOUS Ким Сан Тэ (Kim Sang Tae), сейчас по миру путешествуют примерно 20 миллионов корейцев. Они любят цветы и природу, поэтому могут легко отправиться в места, предлагающие экотуризм. Они уже не так привередливы, как люд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и более экономны. Это значит, что как минимум они не будут требовать корейскую еду ежедневно, а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пробуют национальные блюда. А во-вторых, они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заселятся в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й, но недорогой хостел или, например, отправятся в путешествие на самолете авиакомпании-лоукостера.

— Даже я уже перестал возить с собой кимчи, — шутит Ким Сан Тэ. — Молодое поколение поменяло образ мышления.

Также он сказал, что Сахалину важно разобраться с очередями на пограничном контроле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го экспертного совета по развитию туризма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Ольга Гуревич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еще корейцев привлекает шопинг, еда и морковный косметический крем, который продается только в России. Также они могут быть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отдыхе на природе, в том числе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Но, на ее взгляд, еще есть что редактировать.

— Пару лет назад на Сахалин приезжало несколько блогеров из Кореи, они занимались горнолыжным спортом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 рассказала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Дрим» Юлия Бак. — В итоге у них было несколько претензий: в городе нет табличек на английском, в ресторанных меню нет перевода или хотя бы картинок, а сам горнолыжный комплекс не может похвастать достаточным количеством точек питания. Но в целом они все равно остались довольны, особенно соотношением цена/качество.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ООО «Грин Солюшн» («Мега Палас отель») Юрий Им добавил, что по совету тех самых блогер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 приехало уже 70 человек. Раньше они ездили кататься на лыжах в Саппоро, но решили поменять маршрут по совету блогеров.

— Это еще одно свидетельство того, что Сахалин может занять свою нишу и привлекать горнолыжников из Кореи, — добавил Юрий Им. — Это проще, чем звать жителей Хоккайдо, у которых тоже есть свои зимние курорты.

Пак Сун Ок, руководитель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братила внимание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еще на один способ привлечения в регион и молодых, и взрослых туристов из Кореи. Она предложила создать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туры,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людям побольше узнать о траг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которая связала Сахалин и Корею.

(РИА «Сахалин-Курилы»)

## 95% корейнок, имеющих детей, думали об уходе с работы

95% южно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имеющих детей, думали об уходе с работы. На это указывают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еденного Центром финансов и менеджмента банка Кунмин с 23 августа по 6 сентября среди 2 тыс. женщин.

Большинство респондентов отметили, что думали об этом, когда их дети начинали учёбу в младшей школе.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 о финансовом положении таких мам в случае увольнения с работы, 34,3% назвали помощь родителей, 20,1% рассчитывали

на других близк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Между тем, семь из десяти респондентов выразили стремление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ать, около 40% отметили желание проработать на одном месте более 10 лет. 63% респондентов сказали, что введение 52-часовой рабочей недели внесло вклад в обеспечение баланса между работой и домом.

Кроме того,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половина таких матерей оказывает экономическую и другую помощь своим родителям и родителям супруга.

KBS World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дсчитали число нелегально проживающих иностранцев

Власти Южной Кореи обнародовали статистику по проживающим в стране иностранцам, включая тех, кто находится в стране нелегально. "Рекордсменами" по этому параметру ст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аиланда, Китая и Вьетнама, где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нелегалов превысило 200 тысяч человек.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статистика была предоставлена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ответ на депутатский запрос члена парламента РК Сон Ги Хона, представляющего правящую Демократическую партию "Тобуро". Народного избранника заинтересовали данные, касающиеся проживающих в стране иностранцев.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службы иммиграц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РК, на конец июня 2019 года в стране на длительной основе (90 и более дней) находились более 2 миллионов 416 тысяч зарубежных граждан, из которых более 366 тысяч проживают в Корею нелегально. В их число попадают те, кто въехал в Корею по безвизовому режиму

или остался после истечения срока действия визы.

Что касается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ю россиян, то их насчитывается более 61 тысяч, из которых более 11 тысяч (11 222 человека) проживают нелегально.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аждый пятый-шестой россиянин,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ся долгосрочно в Корею - нелегал.

Впрочем, Россия не находится в лидерах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По данным минюста, в первую тройку вошли Таиланд (более 140 тысяч нелегалов), Китай (более 70 тысяч) и Вьетнам (более 51 тысячи).

В целом число длительно проживающих в Южной Корею иностранцев неуклонно растет. Если в конце 2016 года их число было немногим более двух миллионов, то на конец июня текущего года уже приблизилось к двум с половиной миллионам.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а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из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ю 51 миллиона 709 тысяч человек около 4,5 процентов - иностранцы.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 570 руб. 9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ЦТАК: На полигоне Сохэ проведены «очень важные испытания»

Как сообщило в воскресенье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накануне на полигоне Сохэ в районе Тончхан-ни успешно проведены «очень важные» испытания. Их результаты «окажут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существенное влияние на изменени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позиции КНДР»,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при этом не уточняется, о каких именно испытаниях идёт речь. В минувшую пятницу американский телеканал CNN выступил с утверждением, что власти КНДР готовятся к возобновлению испытаний ракетных двигателей на полигоне Сохэ. Данное заявление расценивается экспертами как попытка Севера оказать воздействие на США, учитывая приближение окончания срока для завершения переговоров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торый сам Пхеньян ограничил этим годом.

## Президенты РК и США согласились с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поддерживать импульс диалога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гося 7 декабря 30-минутного телефонного разговора президенты РК и США Мун Чжэ Ин и Дональд Трамп согласились с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поддерживать импульс диалога между Вашингтоном и Пхеньяном. Как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они также согласились с тем, что нынешняя ситуац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является «тяжёлой»,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необходимо поддерживать импульс диалога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быстрых результатов переговоров 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Мун Чжэ Ин и Дональд Трамп провели «углублён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о путях продвижения вперёд мирного процесса и договорились контактировать в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добав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На вопрос журналиста о том, был ли затронут вопрос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завершения переговоров с Севером до конца год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тветил, что он не может более подробно раскрывать содержание телефонного разговора. Он также не ответил на вопрос, планируются ли в дальнейшем контакты с Пхеньяном.

## Корейский институт развития вновь оценил ситуацию в экономике как спад

Корейский институт развития (KDI) девятый месяц подряд оценивает эконом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в стране как спад.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в представленном 6 декабря докладе, продолжается спад в ре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е, в частности, сокращаются экспорт и инвестиционная активность. С ноября прошлого по март этого года институт оценивал состояние экономики как замедление роста, но с апреля применяется термин "спад". Эксперты сообщают, что на фоне снижения экспорта наблюдается сокращение объёмов производства в об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окращение загрузк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мощностей и низкий рост производства. В октябре показатели сферы электроники снизились на 0,5%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но производство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незначительно выросло. В автомобилестроении отмечено сокращение на 6,6%, в производстве запчастей для электронной техники на 14,4%. Уровень загрузк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мощностей составил 73,2%.

## РК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космети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оставило цель к 2022 году войти в тройку мировых лидеров по экспорту косметики.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страна на четвёртом месте. 5 декабря был опубликован план развития космет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будущего с целью обеспечения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рофильной отрасли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План подразумевает увеличение с 4 до 7 числа отечественных компаний, входящих в сотню крупнейших миров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косметики и создание 73 тыс. рабочих мест. Среднегодовой рост экспорта косметики в РК составляет 34,9%. Однако есть проблема, которая заключается в необходимости новых рынков. 42,4% экспорта приходится на китайский рынок.

## Снижение турпотока из РК отрицательно сказывается на японской сфере туризма

Профицит платёжного баланса в японской сфере туризма составил в октябре 1 млрд 874 млн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184 млн долларов мен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японская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я NHK. Такое снижение было зафиксировано, несмотря на ряд мероприятий, традиционно привлекающих туристов. Снижение профицита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вызвано сокращением поток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туристов. По данным ме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октябре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посетивших Японию, сократилось на 5,5%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Поток туристов из РК сократился на 65,5%. (RKI)

## К юбилею писателя

Для студентки СахГУ Александры Макеевой прочтение повести Сергея Яна с выходом на осмыслен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с точки зрения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я – пока еще первая попытка бы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в суждениях и выводах. Однако возможно, что со временем эта скромная работа может вылиться в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е и интерес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той части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раеведения, к которой принадлежит творчество Сергея Яна.

## Тема семьи в «Стране отцовских грёз» Сергея Яна

Известно, что на Сахалине существует больша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которая начала формироваться еще в самом начале XX века. Об этом написано не только в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но и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публицист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ях. В частности, это тема поднимается в книгах Сергея Яна.

Сергей Ян является автором прозаических книг («Сон одинокого облака» (2005), «Слушая песни дождей» (2011), сборников стихотворений «Тени цветов» (2006) и «Тихое счастье» (2014). Произведения Сергея Яна многократно публиковались в островной периодике: в сборнике «Сахалин» и журнале «Сахалин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 XXI век». А редакция журнал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Хабаровск) включила его в число своих лучших авторов за 2011 год. Основная тема, которую поднимал в своей прозе и поэзии автор – это философские размышления о жизни людей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Эти мотивы можно заметить и в написанной в форме путевых заметок книге «Страна отцовских грёз». В этом произведении Сергея Яна рассказывается о путешествии героя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 в Южную Корею.

Из первой части книги можно узнать, что поездка на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состоялась благодаря Ассоциации разрозненных семей. Началась она 20 ноября 1996 года в составе группы из восьмидесяти человек. С собой герой берет горсть земли с могилы отца, чтобы рассыпать землю на территории буддийского храма Пульгукса. Но после приезда некоторые пассажиры не обнаруживают своих вещей, а у главного героя теряется пакет с документами его отца, фотографии и этот самый «узелочек земли», на котором «заканчивается» долгожданная «миссия»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а. Далее туристов заселяют в отель «Ramada Olympia Hotel», на протяжении их пребыван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они посещают экскурсии и знакомятся с современной страной. Между тем, автор делится воспоминаниями о своей семье, иногда прерывая основное повествование.

Первое воспоминание о семье обнаруживается еще в предисловии, где говорится о том, что Сахалин так и не стал домом для отца героя. Кто такой человек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как важны попытки отыскать сво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как нужны встречи через времена и расстояния пишет Сергей Ян в своей проникновенно философской книге.

Упоминания об отце, как важном человеке в большой семье, присутствуют во всем повествовании. Рассказов об отце больше, чем фрагментов о других, близких повествователю людях. Вероятно, что это может говорить о некой близости повествователя (в образе которого, безусловно, прочитываются черты самого автора) с отцом. Сергей Ян был старшим сыном, значит, мог чувствовать такую же больш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семью, как и его отец. В книге «Страна отцовских грёз» говорится о том, что отец главного героя был человеком малограмотным, любил шумные застолья, всю жизнь проработал землекопом, отличался чрезмерной добротой и великодушием. Отдельно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отец был очень гостеприимным: гости его никогда ни в чем не нуждались и не уходили обиженными. Всю жизнь этого человека преследовали болезни и рабочие травмы, он мало говорил о детстве и только перед смертью обмолвился о своих родителях, рассказал о том, как мечтал побывать в родных для него местах.

В главе «Сеул – Кенджу», находясь за ужином в гостинице и наблюдая за танцами и весельем, герой прерывает повествование новым воспоминанием о доме. Большая семья собиралась в отцовском доме, играла музыка. И на фоне этих фактов возникает описание суеты вокруг домашнего очага. Здесь же идет упоминание о матери героя, которая умерла через восемь лет после смерти отца от инсульта. Она была из интеллигентной семьи, окончила девять классов. В то время это был хороший уровень образования. Мать героя знала три языка: корейский, японский и русский с «акцентом» японского. Не успев вернуться в родные места, она навсегда осталась жить на острове, который так и не стал для нее близким. Мать главного героя прочитала много книг. Ей



знакомы имена Льва Толстого, Достоевского, Шолохова, Максима Горького, Мацуо Басё и Юкио Мисимы. Эта удивительная женщина любила музыку и песни, поэтому в доме «никогда не умолкало радио, настроенное на токийскую волну». Она многому научила главного героя: доброте и искусству. Именно она привила любовь к литературе и творчеству. Отсутствие гражданства и обществен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 поиску родственников не позволяли матери, мечтавшей быть учителем, заниматься любимым делом.

Во второй части произведения упоминается одно из тяжелых испытаний семьи в ноябре 1953 года: родителей и детей отправляют в колхоз, разрешив взять с собой только самое необходимое. Всю зиму до весны сильная корейская семья жила впроголодь вместе с русскими и украинскими переселенцами.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семья в книге Сергея Яна упоминается не только как группа живущих вместе людей (связанных родственными отношениями), но и как национальная общность. Несмотря на большие трудности, которым подверглась Южная Корея, страна быстро восстановилась в сфере экономики. Корейцы с уважением и гордостью относятся к своей родине, они считают своим долгом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осту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Удивительно, как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политические трудности сближают страну подобно целой семье.

Отдельные страницы книги посвящены семейным традициям: мужчины женятся в возрасте 28-35 лет, а женщины выходят замуж в 25-28 лет. Регистрация свадебных обрядов проходит в мэрии. По желанию новобрачных может быть совершено венчание в церкви. Оно, по словам героя, занимает 20-25 минут, после чего гости идут на трапезу, где пьют, танцуют и поздравляют молодоженов. Все это длится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После радостных минут встречи с членами семей и друзьями молодые люди отправляются в свадеб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Символика корейского флага тоже есть часть семейственности. Расположенные в разных углах полотнища триграммы Цянь, Кунь, Ян и Инь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ассоциируются с отцом, матерью, средним сыном и средней дочерью.

Политическая и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странах АТР в середине XX века, безусловно, повлияла на творчество Сергея Яна. Проблема разделения и сплочения семей нашла отражение в книге «Страна отцовских грёз». Произведение Сергея Яна является иллюстрацией не только частного взгляда на существующую проблему разделения семей, но в какой-то мере представляет типичный взгляд на то, что присуще каждой корейской семье на Сахалине. Граница между автором (Сергеем Яном) и повествователем (главным героем повести) очень зыбкая, трудно просматриваемая и это выводит читателей на определенные жанрово-тематических особенностей книги «Страна отцовских грёз». Дебютн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Сергея Яна можно назвать не только путевой повестью (состоящей из разных записок) или повестью лирико-философск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но и произведением, которому присуща большая доля автобиографичности.

Александра Макеева,  
студентка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 Педагогов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 приглашают н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конкурс «Учитель будущего»

Педагогов школ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глашает войти в команду «Учителей будущего» президентская платформа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Регистрация участников проекта на сайте конкурса [Teacher.rsv.ru](http://Teacher.rsv.ru) открыта. Заявочная кампания продлится до 31 декабря 2019 год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свещ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частие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конкурсе «Учитель будущего» могут принять все желающие учителя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 – и опытные педагоги, и новичк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на конкурс и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правилами участия можно на сайте [Teacher.rsv.ru](http://Teacher.rsv.ru)

В концепцию конкурса заложены идеи командной работы как инструмента междисциплинар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учителей и формирования целостной картины мира у школьников, а также «триединства»: педагоги являются не только носителями информации в области преподаваемой дисциплины, но и видят её место в системе знаний, а также оказывают психолого-педагогическ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обучающихся.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могут принять как учителя, которые давно в профессии, так и педагоги с небольшим стажем работы, также отсутствуют возраст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Командный учительский конкурс «Учитель будущего» пройдет в три этапа: регистрация и заочный отборочный этап, очные окружные полуфиналы и финал. Для участия в конкурсе каждому члену команды,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 из трех учителей одного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нужн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на сайте конкурса и заполнить до 31 декабря анкету.

Отборочный этап (онлайн-тестирование) конкурса,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январе 2020 года, состоит из трех блоков: вопросы из области предмета и методики его преподавания, вопросы по психологии и педагогике, проверка знаний норм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Баллы, полученные каждым участником, будут суммироваться с баллами других членов команды, на основании этого будут определены команды, прошедшие в окружные полуфиналы.

На полуфиналах,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во всех федеральных округах, учителям предстоит, поделившись на потоки, выполнить задания трех треков: решение кейсов (реальные ситуации из школьной жизни), разработка междисциплинарного урока, игры и формы проверочной работы (или фрагмента), а также дебаты по различным дискуссионным вопросам образования. Команды, набравшие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баллов, станут финалистами конкурса.

Участниками финала, который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апрель 2020 года, станут 100 команд учителей. Ключевыми испытаниями финала будут: коллективный междисциплинарный урок, воспитатель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и конференция в стиле TED (формат предполагает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уникальных идей посредством семиминутного публичного выступления,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оратор раскрывает основные тезисы своей идеи на заданную тему).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конкурс «Учитель будущего» стал 22-м проектом платформы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Он охватит всю страну, мы приглашаем к участию команды учителей школ, лицеев, гимназий, в том числ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учителей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ов, а также педагогов воспитательных служб без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и стажу. Конкурс «Учитель будущего» призван найти не просто талантливых учителей, н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едагогов, умеющих работать сообща, понимающих, что эффект от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команды качественно превосходит эффект от работы отдельных людей»,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НО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Алексей Комиссаров.

Среди финалистов будут определены 30 команд победителей. В течение следующего учебного года они получат возможность работать с наставниками из числа популяризаторов наук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и методистов ведущи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Кроме того, по итогам конкурса предлагается сформировать сообщество учителей будущего из числа полуфиналистов и финалистов. Члены сообщества получат возможность участия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событиях на базе Мастерской управления «Сенеж» –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АНО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а также в ключевых событиях сферы образования.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справка: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АНО)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была создан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Ключевые цели организации: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для повышения социальной мобильности, обеспечения личностной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граждан, а также создание эффективных социальных лифтов в России. Наблюдательный совет АНО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возглавляет Президент РФ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АНО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развивает одноименную платформу, объединяющую 22 проекта: конкурс управленцев «Лидеры России», студенческая олимпиада «Я – профессионал»,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курс «Мой первый бизнес»,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Доброволец России», проект «Профстажировки 2.0», фестиваль «Российская студенческая весн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Мастера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Грантовый конкурс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конкурс «Цифровой проры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конкурс «Учитель будущего», портал Бизнес-навигатора МСП, конкурс «Лучший социальный проект год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проект «РДШ-Территория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мастерству среди людей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Абилимпикс», всероссийский молодежный кубок по менеджменту «Управляй!», Российск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премия «Студент года», движение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WorldSkills Russia),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й проект «Мечтай со мной»,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Лига вожатых», конкурс «Моя страна – моя Росси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инженерный чемпионат «CASE-IN» и «Олимпиада Круж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НТИ.Junior».

## На Сахалине завершилась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неделя туризма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более 400 человек. Эт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уристических фирм, гостиниц, ресторанов, кафе и других 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индустри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в рамках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недели туризм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ось 17 тематических и 3 сессии специ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для рестораторов и отельеров. Специалисты обсуждали как привлечь инвестиции в

туристическую отрасль, проблемы сертификация экскурсоводов и гидов-проводников, планы по развитию транспортной сист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собый интерес у участников вызва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таких экспертов, как Виктория Колитенко,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УК «Экватор»; Дмитрий Куликов, тревел-блогер @Oktagon, консультант по тревел-маркетингу; Татьяна Заречнева,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екта Pacific Russia Food.

В рамках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недели туризма состоялось международное ознакомительное тур для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Руководители круп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агентств из Китая, Кореи, Японии смогли предмет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существующими и перспективными форматами туров на Сахалине. Сво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эти участники поделились в рамках «страновых» сессий 5 декабря, когда на основной площадке форума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обсуждались национальные предпочтения туристов из Японии, Китая и Кореи.

К неделе туризма был приурочен пресс-тур для федеральных и иностранных СМИ. Журналисты успели посетить новое здание аэровокзала, строящиеся объекты туристической сферы в ТОР «Горный воздух». Кульминацие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недели туризма стала организация однодневной экскурсии на Итуруп для 60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неделя туризма проходи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 2 по 8 декабря.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н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туризму

## На Сахалине отметили День Героев Отечества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9 декабря в зале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Гостями праздника стали участники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етеран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а также граждане, удостоенные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наград.

За вклад в ветеранское движение 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воспитание молодеж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ручил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членам сахалин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авлу Захарову, Ивану Лахно, Алексею Лотто, Виталию Михайлову, Юрию Михину и Андрею Старкову.

– Герои – это не только те, кто дают отпор врагу, но и вносят значим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и укрепление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работают на благо людей. Ну и, конечно, герой – это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в трудную минуту всегда приходит на помощь. Даже если для этого придется рискнуть жизнью. Такие люди были, есть и будут главной опорой страны и ее регионов! 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о относится к вам – защитникам Отечества, – обратился глава региона к присутствующим.

Област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деляет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людям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в том числе – ветеранам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Сегодня в регионе действует большой пакет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Власти помогают в улучшении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оплате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луг, компенсации стоимости проезда к месту отдыха вне предел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Также им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бесплатное санаторно-курортное лечение, зубопротезирова-

ние и проезд в общественном транспорте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После официальной части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должил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 Медиашкола дополнит деловую программу Дне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Москве

В рамках Дне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Москве пройдет III очная сессия второго набора «Медиашкол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репортер».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Аппарата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с 12 по 14 декабря в ЦВК «Экспоцентр».

Для обучения в Медиашколе приедут работники в области медиа всех 11 субъект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Среди них также буду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ГТРК «Бира»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портала ZAB.ru – победители конкурса на лучший материал о ВЭФ-2019, которым организаторы в качестве приза оплатили проезд и проживание в Москве.

«Программа третьей сессии Медиашколы обещает быть очень насыщенной. Мы отобрали высококлассных спикеров по итогам нашего предыдущего двухлетнего опыта работы, – заяв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екта «Медиашкол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репортер» Алексей Бабков. – Как обычно, мы готовим и ряд сюрпризов для наших участников. Будет несколько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й, в том числе с хорошо извест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деятелями федерального уровня».

Обучающая программа III сессии состоит из 17 активностей, которые направлены на повышение квалификации и расширение общего кругозора участников. Среди общего списка мастер-классов и интерактивных занятий заявлен мастер-класс «Спецназ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войны» президента компании «Инфорус» Масаловича А.И. и занятия «Как атакуют репутацию: механизм воздействия на ЦА и технологии доставки ударного контента», «Как организовать защиту репутации. От выявления до нейтрализации воздействия на ЦА» руководителя департамента управления репутацией Group-IB Нежданова И.Ю.

Всего в Медиашколе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более 20 спикеров. Среди них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ного редактора редакции ТАСС Самарина Л.В., шеф-редактор [vedomosti.ru](http://vedomosti.ru) Товкайло М.В., юрист в области медиа Антонец Г.И., к.п.н. и доцент МГУ им. М. В. Ломоносова Зверев А.Л.,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по подготовке кадров – Директор Академии Ворлдскиллс Крайчинская С.Б.,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Напомним, проект «Медиашкол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репортер» второй год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аппарата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Ю.П. Трутнева.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чно-заочного обучения первого набора Медиашколы сертификат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образца о повышении квалификации получили 52 работника в области медиа.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иняло более 400 человек со всех субъект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обучения и дискуссий в 2018 году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ивлекли более 90 спикеро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Медиашкола реализует мероприятия для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участников второго набора со всех субъект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 В сахалинском селе Мицулёвка после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открылся сельский клуб

Рабочие заменили фасад здания, кровлю, окна и двери. Кроме того, здесь появилась приключная территория, где теперь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все масс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 Сельский Дом культуры – эт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центр общения, духовного развития и отдыха людей, – отметила в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й речи исполняющая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етлана Аленкова. – Модернизация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 важный шаг в создании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й жизни на селе. Мы должны поддерживать работу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Обновление сельского клуба провели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Культура».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для учреждения приобретут современную мебель.

– Мицулёвка расширяет границы. В селе появляются новые улицы, такие как Цветочная, Заречная, Чехова. Здесь проживает немало молодых семей. Есть среди них и многодетные. Власти Ани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и в дальнейшем будут создавать благоприя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досуга сельчан, – подчеркнула вице-мэр,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Олеся Дегиль.

Сельский клуб Мицулёвки сегодня посещают около 50 человек. В их числе – дети и взрослые. Для них организованы занятия в кружках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лубах по интересам. В просторных и светлых комнатах также располагается сельская библиотек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올해는 사할린 한인 강제 동원 80주년이 되는 해 다시 사할린 한인사를 돌아보며

(2면의 계속)

그리고 지금 국회에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심사 중에 있다. 그동안 법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외교부가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으로 인하여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위원회의 회의가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대하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요청 전화, 항의 방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를 재촉해야만 이번 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동포 분들의 참여만이 동포들의 영원인 특별법을 통과 시킬 수 있다.

일본에서 사할린 동포 귀환운동으로 일생을 보내신 '화태귀환재일한국인회'의 이희팔 선생님의 말씀을 전하며 마친다.

"우리 민족을 돕는 것은 일본이 해줄 리도 없고 미국이 해줄 리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으로 해왔습니다. 나는 고향에서 소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일본에 인양된 사람 중에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한 사람들은 우리들뿐이었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민족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해온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칭찬하던 하지 않던 상관없이, 한민족의 한 사람으로 해야만 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 [우리말로 깨닫다]

## 우리는 참 다행이다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참 많이 만납니다. 몸에도 마음에도 병이 생기고, 주변에 친구나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닥쳐옵니다. 오죽하면 인생을 고험(苦海)라고 했을까요? 고험의 바다처럼 괴로움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온다는 뜻일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이런 고험을 이겨낼 자신도 사라집니다. 그럼 더 우울해 집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일도 걱정이 되어 괴롭습니다. 울지 안 울지 모르는 일도 미리 당겨서 걱정을 하지만 힘든 생각을 피할 방법을 알지 못해 더 괴롭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방법을 수많은 책에서 제시하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증거일 겁니다. 감기약의 종류가 많은 것과 같은 이치일 수 있겠네요.



▲ 조현웅(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다행'이라는 말을 공부하다가 다행은 주로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쓰는 말이라는 것을 듣고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다행(多幸)이라는 단어는 행운이 많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불행한 상황에 사용한다니 참 아이러니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가장 불행한 순간에도 우리는 행복을 찾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불행한 순간조차도 우리에게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하기 다행이라는 말이 보여주는 세상입니다. 더 큰 불행을 맞지 않은 것만 해도 운이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난 어떤 일이 다행일까요? 다행이라는 말이 행운이 많다는 의미이니 우리가 갖고 있는 행운의 수를 세어보면 어떨까요? 받아들이기 힘든 분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엄청난 행운입니다. 수많은 실패를 뚫고 우리는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말조차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괴로운데 태어난 게 무슨 행복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태어난 게 행운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세상에 나오게 해주신 분이 있다는 것, 나를 가엽게 생각해 준 분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 감사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행운임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인간은 함께 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다행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고, 내가 위로해 줄 사람이 있어서 말입니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잘 안 보인다면 내가 위로할 사람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주변에 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다면 더 힘든 사람을 찾아 위로를 건네 보세요. 위로는 상호적이어서 위로를 하면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위로를 받는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힘든 것은 위로받는 것조차 두렵고 부끄러워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로하는 사람도 내게 위로를 받는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행이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적이 부른 노래인데, 많은 이들이 무척 좋아한 노래였습니다. 멜로디도 좋았지만 특히 가사가 우리에게 공감을 주었습니다. 좋은 가사가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가사 끝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다행이다'라는 말은 힘든 마음에 위로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큰 행복입니다. 가사 속에는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위로를 주고받는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다행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내 옆에 서있는 사람 덕분입니다. 나도 그에게 다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으나 기억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행복을 생각해 봅니다. 참 행복한 사람인데, 우리는 종종 그걸 잊고 삽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 투표기간**  
2020. 4. 1. ~ 4. 6. 매일 08:00 ~ 17:00(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투표장소**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 투표대상**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
- 준비물**
  - 국외부재자 : 신분증명서
  - 재외선거인 : 신분증명서 + 국적확인서류 원본

※ 신분증명서란?  
- 대한민국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귀국투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 1.)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국내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단, 사전투표에서는 투표할 수 없음

## 21st National Assembly Overseas Voting

- Voting Period**  
2020. 4. 1. - 4. 6. 08:00 - 17:00 daily (The voting period may vary by government office)
- Voting Location**  
As designated by the Overseas Election Commission
- Eligible voters**  
Individuals who have applied for overseas absentee registration or overseas voter registration
- Required documents**
  - Overseas absentee : Identity document
  - Overseas voter : Identity document + original copy of proof of nationality

※ What counts as an identity document?  
- Identification with photo attached such as a passport, resident registration card, driver's license, civil servant certificate and such issued by a Korean government office or public institution  
- Identification with photo attached and stating the individual's name and date of birth issued by the government of the country of residence
- Voting Upon Return**  
Overseas voters who return before the start of the overseas voting period (April 1) and overseas absentees can vote at the domestic polling station after reporting to the Election Commission.  
※ However, advance voting is not permitted

### 편리한 재외선거

- 인터넷 신고·신청 가능 (ova.nec.go.kr)**  
Internet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possible (ova.nec.go.kr)
-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 국외부재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선거 때마다 신고해야 함  
Introduction of the permanent listing system of overseas voters  
※ Overseas absentees must be declared for each election as before

### Overseas voting made easier

- 재외국민 수가 많은 지역은 추가투표소 설치**  
Additional polling stations can be installed in areas with a large number of overseas Koreans
- 신고·신청 시 여권 사본 등 서류 미제출**  
※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음  
※ Overseas voters are required to present the original document proving nationality at the polling place in order to vote  
Documents such as copy of passport not required for submission

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참고

① Refer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verseas Voting (ok.nec.go.kr) 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websites for details and further information

# 이모저모

(2면의 계속)

## 사할린주, '올리비에' 샐러드의 평균 가격 1년 만에 6.5% 상승

새해가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 메뉴 준비로 고민하고 있다. 샐러드 '올리비에'는 러시아 전통 새해 음식인데 1년 만에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실제로 모든 식재료 가격이 올랐다. 사할린주에서 '올리비에' 샐러드 준비를 위한 평균 식품 가격은 1년 만에 6.5% 상승했다. 2019년 11월에 4인분 기준 '올리비에' 샐러드의 가격은 445.29루블리에 해당했는데 2018년 11월에 418.05루블리와 비교된다. 이는 '올리비에' 샐러드 설정에 러시아 통계청이 사용하는 기본 식재료를 근거하고 있다.

평균 4인 가족 기준 전통 샐러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이 통조림 500g, 완두콩 통조림 380g, 감자 500g, 당근 200g, 달걀 4개, 소시지(콜바사) 300g, 마요네즈 200g, 양파 100g 등의 재료가 필요하다.

'청어 단층 샐러드'는 조금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 새해 식탁에 올릴 샐러드 식재료로는 청어 절임 350g, 감자 400g, 비트 350g, 당근 200g, 달걀 2개, 양파 100g, 마요네즈 300g이다. 올해 4인분의 '청어 단층 샐러드' 준비로는 226 루블리가 드는데 2018년에는 218.18루블리가 들었다.

1년 만에 모든 식재료의 가격이 올라 양파는 9.9%, 달걀 10개에 8.6%, 감자 8.3%, 절인 청어 7.1%, 채소 통조림, 염장 통조림 5.7%, 소시지 5.3%, 마요네즈 2.7% 상승하였으며, 당근의 경우는 5.9% 하락했다.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едняя стоимость продуктов для "Оливье" за год выросла на 6,5%

Приближается Новый год, и многие из нас уже думают над тем — какое новогоднее меню приготовить. Салат "Оливье",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традиционным новогодним блюдом в России, за год прибавил в стоимости. Подорожали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его ингредиент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едняя стоимость продуктов для салата "Оливье" за год выросла на 6,5%. В ценах за ноябрь 2019 года стоимость салата для четырех человек обойдется сахалинцам в 445,29 рубля против 418,05 рубля в ноябре 2018 года.

В основу расчета положен рецепт, используемый Росстатом для определения индекса оливье. В среднем на приготовление традиционного салата для семьи из четырех человек требуется такое количество ингредиентов: консервированные огурцы (500 г), зеленый горошек консервированный (380 г), картофель (500 г), морковь (200 г), яйца куриные (4 шт.), вареная колбаса (300 г), майонез (200 г), лук репчатый (100 г).

Дешевле будет приготовить "сеledку под шубой". Для новогоднего стола предлагается следующий рецепт: сельдь соленая (350 г), картофель (400 г), свёкла столовая (350 г), морковь (200 г), яйца куриные (2 шт.), репчатый лук (100 г) и майонез (300 г). Приготовление салата "сеledка под шубой" на четверых обойдется примерно в 226 рублей. 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ахалинцы тратили на него 218,18 рубля.

За год подорожали почти все ингредиенты. Цена репчатого лука выросла на 9,9%. Десяток яиц поднялся в цене на 8,6%, картофель — на 8,3%, сельдь соленая — на 7,1%, консервы овощные натуральные консервированные и маринованные — на 5,7%, колбаса вареная — на 5,3%, майонез — на 2,7%, а вот морковь, наоборот, стала дешевле на 5,9%.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mailto:vika131065@mail.ru), [skr@skhhalin.ru](mailto:skr@skhhalin.ru)로 연락 바랍니다.

###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mailto:vika131065@mail.ru), [skr@skhhalin.ru](mailto:skr@skhhalin.ru)

한국 영주귀국하신 돌린스크시 전 한인회장 김 부윤씨께서 병환으로 인해 2019년 12월 12일 향년 82세를 일기로 남양주에서 별세하셨음을 부고합니다. 비애에 젖은 유가족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사할린주노인회  
사할린주이산가족협회

###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вь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ЗАГРУЗИТЕ НА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клама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i>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i></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